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일 월요일 음 11월 6일 (13월)

기상정보

구름 많고 비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주의. Rows show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월드뉴스

美 '추수감사절·블프' 13조원 폭풍 쇼핑

역대 최대 규모 소비액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의 '폭풍 쇼핑'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한 의류매장.

30일(현지시간)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하루 동안 미국 내 온라인 쇼핑은 74억달러(약 8조7320억원)를 기록했다.

28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에 이뤄진 온라인 쇼핑도 42억달러로 집계됐다. 추수감사절에 온라인 매출이 4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며, 역대 최대다.

이는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또 하루 기준 지난해 사이버먼데이 당시 기록한 79억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다.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이틀간 116억달러(약 13조6880억원)의 쇼핑을 한 셈이다.

소비자들의 1인당 평균 쇼핑액은 168달러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거의 6% 늘어났으며, 이 역시 블랙프라이데이 역사상 최대 규모다.

미 CNBC 방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Frozen II) 인형과 'FIFA 20', 'Madden 20' 등과 같은 비디오 게임, 애플의 에어팟, 삼성전자의 TV 등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백록담

추사 유배지 명칭에 '대정'이 빠진 이유



진 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이 고을의 풍토는 또 하나의 유별난 곳으로 하나하나 매우 달라서 까딱하면 탄식하고 놀랄만 하나 모두가 불만만 것이 없다. 기후가 겨울철에도 때로는 따뜻하고 여름철은 간혹 서늘하나 변화가 무쌍하고, 바람과 공기는 따뜻한 것 같으나 몸에 와닿기는 살을 에는 듯 하고, 의복과 음식을 조절하기 어려워 병이 나기 쉽다."

조선 중종대의 총암 김정(1486~1521). 총암은 기묘사화에 얽혀 1520년 8월(음력) 제주에 유배돼 이듬해 10월 사약을 받아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인용문은 그가 쓴 '제주풍토

록'의 도입부로 유배인의 심경이 더해져 제주살이가 처절하게 그려졌다. 유배인들에게 제주를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절로 한탄하게 하는 섬이었고 토착민들엔 차고 넘치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된 땅이었다.

약 500년이 흐른 지금의 제주는 어떤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던 유형에 처해진 '육지 사람들'을 가두던 섬은 어느새 '자발적 유배'란 말을 당당히 입에 올리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다. 근래의 개발 지형이 그같은 '유배'를 허락하지 않고 북쪽이든 도시를 닮아가고 있지만 바다 건너 다다른 제주에서 낯설을 발견하고 삶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발길이 끊긴 건 아니다.

일찍이 유배를 문화 자원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제주 예술인들로 구성된 제주예총은 1982년 유희비만 있던 추사 김정희 유배지에 초가를 복원하는 등 오늘날 제주

추사관을 낳는 계기를 만들었다. 제주예총이 제주 예술가인 현충화·변시지 작품 등을 판매해 조성한 기금에 지자체 예산이 더해지며 1984년 추사유물전시관이 들어섰다. 추사유물전시관은 2007년 유배지가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이후 그 격에 맞게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며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새로이 지어져 2010년 5월 개관했다.

제주추사관을 기점으로 제주 유배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오고 있는 때에 일각에서는 그 일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명칭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배지 대정'의 존재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정현은 조선시대 세 고을 가운데 제주목, 정의현에 비해 정치적 중추의 유배지로 여겨졌다. 한양에서 볼 때 제주목보다 더 먼 곳이 대정현이었기 때문이다. 문화재 명칭

을 바꿔야 한다는 이들은 유배지의 특성과 추사가 9년 가까이 머물던 점을 고려할 때 '대정'이란 이름을 넣어야 외로움이 낡은 예술적 성취의 배경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매마르고 거친 필치로 표현된 화면에 담긴 차갑고 황량한 분위기의 '제한도'를 떠올려 보자. 파스한 남국이 연상되는 서귀포와는 거리가 느껴진다. 추사는 대정현의 세찬 바람을 견디며 훗날 국보가 된 그림의 영감을 얻었던 것은 아닐까.

'서귀포 유배지'란 작명을 두고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무렵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남제주군' 지명이 지워진 탓에 대정이라는 지역의 특수성마저 희석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을마다 품은 개성과 정체성이 경쟁력인 시대에 대정고를 사람들이 넘어온 세월의 파고를 다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 하나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

열린마당

기초질서 지키기로 만드는 청정 제주시



이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최근 몇 년 간의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증가, 성장 일반도의 개발 사업 증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제주시를 쓰레기 천국, 교통지옥, 주차난의 진원지로 개악(改惡)시켰다. 더 이상은 이러한 삶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자성이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기초질서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이다.

기초질서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의 내용은 간명하다. 사람들이 모두 지켜야 할 공통의 선인 기초라는 바탕 위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는 진짜 시민의 주인 의식을 이끌어 내어 기분이 바로 선 제주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JDC 꿈꾸는 학교 드림캐처 봉사단



임형래 오현중학교 1학년

오현중학교는 JDC의 후원을 받아 '꿈꾸는학교 드림캐처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꿈꾸는 학교를 통해 글로벌 아카데미 강연도 듣고, 다양한 예술·체육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JDC 꿈꾸는학교 드림캐처봉사단'을 모집에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 선발이 돼 JDC항공우주박물관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책상과 의자를 옮기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 및 어린이들에게 종이비행기를 접고 날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을 들었다. 활동의 목적은 봉사활동이었지만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접어 날리던 종이비행기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새롭게 배웠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이었다. 그 분들의 국제 또한 다양했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문화가 달라서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편견 말이다. 하지만 이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며 내가 그러한 편견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무엇보다 그분들은 너무나도 친절했다.

작은 손으로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말하던 어린이가 있었다. 나는 옆에 가서 배운 대로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나의 도움으로 성공했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기분이 매우 좋았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서서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준 JDC와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JDC 꿈꾸는 학교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면, 좋은 경험이 될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WIDEX advertisement for hearing aids, including contact info and benefits.

Advertisement for '감골묘목' (Gomgol Myomok) nursery, listing various tree typ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All varieties of Gomgol seedlings), listing tree typ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감골묘목' (Gomgol Myomok) nursery, listing various tree types and prices.